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57-63,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57

JCCT 2023-9-7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김상수*, 문현영**

Sangsu Kim*, Hyunyoung Moon**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주요어 : 하이브리드 전쟁, 정의전쟁론, 도덕적 책임, 도덕적 정당성, jus in bell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hybrid warfare and show the limits of jus in bello, a principle that evaluates th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s. As a theory of the morality of war presented in traditional warfare, the just war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particular, jus in bello offers the criteria of moral legitimacy regarding the actions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or involved in war. However, hybrid warfare, in which various aspects of warfare operate in a complex way, has obvious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warfare, and this difference causes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moral evaluation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actions in war.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olve the moral problems arising from hybrid warfa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ral justification theories are. To this end, in this paper, we will first present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hybrid warfare, specify th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warfare, and then show the limits of its application in hybrid warfare in light of the three principles that compose jus in bello.

Key words : Hybrid Warfare, Just War Theory, Moral Responsibility, Moral Justification, jus in bello

*이 논문은 IPACT 2023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정회원,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철학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육군사관학교 영어과 영어 교수 (제2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18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31일

Received: July 18, 2023 / Revised: August 15, 2023
Accepted: August 31, 2023
*Corresponding Author: sangsukim1985@kma.ac.kr
Dept. of Korean and Philosophy, Korea Military Academy, Korea

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장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1]. 전통적 전쟁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투원들 사이의 무력 충돌로 그 형태가 뚜렷하지만, 현대에는 재래식 및 비정규전, 그리고 사이버전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전쟁이라 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현대전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 형태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살상과 파괴를 동반하며 그 규모 또한 예측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방대하였다. 그런 까닭에 일상생활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살상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자(agent)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이 널리 수용되어왔다. 정의전쟁론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jus in bello(morality in war), 전시 도덕이라 한다. Jus in bello는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다소 있지만 대개 차별성의 원리(principle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리(principle of proportionality), 필요성의 원리(principle of necessity) 3가지로 구성된다는 합의가 있다. 또한, 이 3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전쟁에서 개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전통적 전쟁에 관한 도덕적 접근의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jus in bello가 전통적 전쟁에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전쟁 양상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속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jus in bello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기준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된 이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본 글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더불어 이 전쟁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의전쟁론에서 제시하는 행위의 도덕적 평가 기준인 jus in bello의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Ⅱ.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

2.1 하이브리드 전쟁과 변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평가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2000년대에 들어 전통적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적 전쟁에서는 군대가 국가로부터 무력사용을 합법적으로 위임받아 자국의 전쟁 명분(causes of war)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현대에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의 치명적인 위협이 증가하고 사이버전의 잠재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전쟁의 수행방식이 점차 다양해졌다. 더욱이 비국가 행위자가 기술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전쟁 수단을 통해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함에 따라 현대 전쟁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군사작전에 관여하면서 폭력의 규모와 효과 측면에서 재래식 군대를 모방하거나 공동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전쟁 수단과 탈중앙 집중식 작전(de-centralized operations)의 결합은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적대 행위자들이 기존 국제관계에서 전쟁 수행방식의 불확실성과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었다[2].

그런 까닭에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방어는 국가안보를 수행해야 하는 집단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다양한 고민을 안겨다 주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하이브리드 전쟁을 개념적 분석과 관련하여 호프만(Frank Hoffman)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재래식 능력, 비정규 전술 및 편성, 무차별 폭력과 강압을 포함한 테러 행위, 양측 및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수행하는 범죄 무질서 등 다양한 전쟁 양상을 모두 포함하는 위협"으로 정의한다[3]. 즉, 호프만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전장에서 정규 및 비정규 전쟁 양상이 병합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의 개념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위협'에는 군집 전술과 작전을 사용하여 비정

규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와 관련된 정교한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적인 비국가 행위자가 포함된다. 호프만이 정의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은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 전쟁의 잘못된 이분법에 기반한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에서 잘 드러난다. 이란의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헤즈볼라는 게릴라 전술과 재래식 군사 전술을 정교하게 조합하고 선진국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무기와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하였다. 전략적 차원에서 헤즈볼라는 정보와 선전을 위해 인터넷과 기타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헤즈볼라의 정보 관리는 분쟁 초기부터 전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4].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ics
I1: International pressure on Israel	I4: al-Manar	I7: Military armament	I10: income sources (legal/illegal)
I2: Status as non-state actor	I5: Large recruitment pool	I8: Tactics and operations	I11: State-sponsorship
I3: Lack of pressure on Hezbollah from other states	I6: Providing social services	I9: Safe Haven	I12: Diaspora donations

출처: Mulhern, Stephen Keith. "An Analysis of Hezbollah's Use of Irregular Warfare." (2012).
그림 1.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정규전 활용 분석
Figure 1. An analysis of Hezbollah's use of irregular warfare against Israel

그러나 하이브리드 전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념이 확장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많은 논평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재래식 및 비정규 전투 작전과 더불어 정치적 시위 지원 및 후원, 경제적 강압, 사이버 작전, 특히 강력한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을 종합하여 확장된 '하이브리드' 개념이라 표현하였다. 이는 호프만이 제시한 전쟁의 개념과 대비하여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개념에서는 대규모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임계치를 한정시키면서 키네틱(kinetic) 과 비키네틱(non-kinetic) 수단이 혼합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5].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한 확장된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다. 위에서 기술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그림 2로 도식할 수 있다.

출처: https://katehon.com/en/article/concept-hybrid-warfare
그림 2. 하이브리드 전쟁과 구성요소
Figure 2. Hybrid warfare and its combinations

2.2 하이브리드 전쟁과 전통적 전쟁의 차이

재래식 전쟁 방식과 확장된 비정규 전쟁 방식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과거의 전쟁 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은 명확하다. 과거에는 재래식 작전과 비정규 작전이 통합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비정규 작전은 일반적으로 재래식 군대의 작전보다 덜 중요한 부차적인 작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이 점차 확장되고 그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 전쟁의 대표적 양상인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감소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정보전 등이 결합한 비정규 작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6]. 하이브리드 전쟁이 전통적 전쟁의 차이는 표 1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warfare and hybrid warfare

구분	전통적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영역	물리적 전장	다영역 전장, 초연결 네트워크, 비물리적 가상 공간
행위단체	국가	국가와 비국가의 혼합
행위자	전투원	전투원, 비전투원
수단	대량살상 무기를 제외한 전통적 무기체계	전통적 무기체계 +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정보전 등이 결합한 비정규전의 수단들
목표	적대국과 군대	적대국, 군대, 민간인
목적	적대국 격퇴 및 무력의 와해	적대국의 의지를 와해 + 전통적 전쟁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목표획득

III. 하이브리드 전쟁과 도덕적 문제

3.1 전쟁과 도덕

전통적으로 전쟁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살상과 파괴를 동반하기에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과 그 수행과정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전쟁에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있지만 이를 지지하는 근간이 되는 도덕적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주의(realists)를 수용하는 이들은 전쟁에서 규칙과 법 그리고 도덕 등을 개입시키는 것은 전쟁이라는 파괴적 활동을 승인함과 동시에 거부하는 양가적 태도(ambivalent attitude)라 반박하기도 한다.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극히 짧았으며, 인간은 홉스(Thomas Hobbes)가 주장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서 개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기에 전쟁은 그 본성상 어떠한 인도주의적 규범(humanitarian norm)을 동반해서도 또는 동반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무수히 많은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현실주의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하였다. 그 결과 전쟁에 대한 각종 규범과 전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산물이 전쟁의 도덕(morality of war)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3.2 정의전쟁론

전쟁에서 전쟁의 도덕적 고찰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 정의전쟁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쟁에서 도덕적 문제 영역은 전쟁 자체의 도덕적 정당성(jus ad bellum)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전시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jus in bello), 그리고 전쟁 후 도덕의 문제(jus post bellum)로 구분한다[7]. 전쟁에서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3가지 영역은 전쟁에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집단과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원리라 할 수 있다. 현대 정의전쟁론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력 충돌이며 전쟁의 영역은 물리적 전장으로 한정하여 양쪽 국가에 속해 있는 전투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전쟁의 영역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네트워크, 인간의 심상 및 인지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전투원을 포함하여 비전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기본적 전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jus in bello에서 제시되는 개인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의 평가는 전쟁 수행방식의 다양성과 각 행위 사이의 구분 모호성으로 인해 도덕적 책임을 강도를 결정하고 귀속시키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IV.하이브리드 전쟁에서 jus in bello의 적용과 한계

4.1 Jus in bello

앞서 서두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시피 정의전쟁론은 정당한 전쟁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전통적 이론이다. 그런 까닭에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할 때 고려되는 이론이기도 하다.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을 구성하는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를 의미하며, 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관계하지 않는다. 이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행위자 즉 개인 행위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평가 원리가 있다.

1) 차별성 원리: 전쟁에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은 구 분되어야 하며 비전투원은 허용될 수 없는 표적이다.
2) 비례성의 원리: 전쟁에서 상대편을 공격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견되는 피해는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적 이점에 비례해야 한다.
3) 필요성의 원리: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편을 공격할 때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해로운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4.2 차별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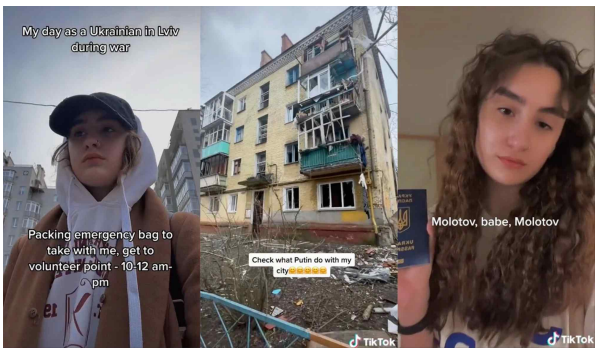
위 3가지 원리를 하이브리드 전쟁에 적용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차별성의 원리에는 자

기방어(self-defense)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어떤 개인도 자신의 행동으로 기본적 생명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않는 한 정당하게 공격받을 수 없다[8]. 중요한 점은 사람 A가 사람 B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므로 살인이 정당화되려면 피해자가 생명권을 잃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투원 신분을 가진 개인은 군인이 되면 이러한 기본권 중 일부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민간인 즉, 비전투원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존하기 전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민간인들의 시설인 주택, 예배당, 학교 등 또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차별성의 원리는 전쟁은 전투원 간의 싸움이며 군사적 목표만이 합법적·도덕적인 공격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차별성의 원리는 전쟁에서 양측의 전투원은 기본적으로 상대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역량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전장에 참여하는 동의(consent)를 한 '검투사'와 유사하지만, 비전투원은 누군가를 살상할 역량이 없으며 동시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에 그 의도 또한 부재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7]. 전장과 비전장의 구분이 명확하고 전쟁의 수단이 물리적 활동에 초점을 둔 전통적 전쟁에서는 행위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함에 있어 차별성의 원리의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의 경우 전장의 다양성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자가 전투원과 비전투원 모두를 포함하기에 이 원리의 적용은 제한된다. 물론, 비전투원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SNS를 통한 선전 및 선동 등과 같은 비전투적 활동은 상대편 전투원의 역량을 마비시키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정규작전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NS 사용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틱톡(TikTok) 사용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군사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게시함으로써 러시아군의 전시 행위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자국의 방어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틱톡 사용자들은 무장하지 않은 비전투원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장에서 전투원들의 살상 또는 파괴보다 때로는 효과적인 전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투원의 비폭력적 참여를 전쟁의 주요 역할로 간주하며, 전쟁의 국면을 유리하게 형성하고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틱톡 사용자' 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다[9]. 이러한 최근 사례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무장하지 않는 비전투원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시사함과 동시에 차별성의 원리의 전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 원리가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https://i-d.vice.com/en/article/4awee9/young-ukranians-on-using-tiktok-to-show-the-reality-of-war
그림 3. 틱톡이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실
Figure 3. TikTok shows the reality of the war in Ukraine

4.3 비례성의 원리

두 번째 원리인 비례성의 원리는 전쟁에서 정당화되는 명분과 목적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군사적 목적에 비례하는 수준에 맞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군사적 조치를 방지하고 전쟁에서 불가피한 살상 및 파괴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만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리를 충족하기 위한 전제는 군사적 목적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전투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다양한 전쟁 수행방법이 순차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혼합해서 수행된다. 예컨대, 상대편 국가의 수도를 탈취하기 위한 결정적 작전을 수

행하면서 그 중요성에 따라 물리적 비물리적 활동이 동시에 통합해서 수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만큼 그 활동이 허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특히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무기의 사용이나 부대의 규모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비례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나타나는 비물리적 활동은 인간의 정신과 인식 그리고 외교적 속성이 결합하여 있기에 물리적 활동의 기준에 '적절하게' 비례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

4.4 필요성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필요성의 원리는 전쟁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는 군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하는 데 필수적인, 즉 가장 적은 파괴와 사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소개한 비례성의 원리는 전쟁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원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함을 강조한다면, 필요성의 원리는 살상 및 파괴와 같은 해를 끼치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성과 필요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10]. 사람 A가 사람 B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위협의 강도는 사람 A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이다. 이 경우 사람 A는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 B가 자신에게 가한 위협의 강도에 비례하여 사람 B를 죽일 수도 있다. 즉 비례성은 상대의 위협 강도에 비례하여 행위 적절성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와 다르게 필요성은 만약 사람 A가 사람 B의 위협을 막는 방법으로 사람 B를 단순히 기절시킬 수만 있다면 사람 A가 사람 B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니기에 자기방어라 하더라도 사람 A의 살인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요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인지를 평가하는 원리라면 비례성은 필요성을 전제하고 그 행위의 강도가 목적 달성에 비례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필요성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 자체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합형태이며 다양한 전쟁 수행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필요성이 무력을 동반한 살상의 필요 여부에만 관계하는 원리라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안이 있기에 무력을 동반하는 대부분의 재래식 정규작전은 필요성에 따라 그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에 포함된 다양한 전쟁 수단 중 어떤 수단이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 필요성의 원리는 비례성의 원리와 구분되지만 어떤 행위가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그 행동이 달성하는 좋은 결과와 비교해서 그 정당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어떤 X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Y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가용한 여러 수단 중 '가장 적은 피해' 또는 '덜 나쁜 결과'라는 기준으로 수단 Y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서 비롯되는 객관적 피해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선제조건(precondition)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전쟁 수단이 잠정적(potentially)으로 끼칠 피해의 수준을 결정할 기준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기에 요구되는 선제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필요성의 원리는 개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jus in bello의 3가지 원리는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그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더불어 전통적 전쟁과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대 전쟁의 형태이자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 도덕적 가치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평가와 이에 대한 책임 귀속문제는 지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난제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쟁에 적합한 도덕적 정당화 원리의 모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현대 정의전쟁론에서 제시하는 jus in bello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성과는 향후 하이브리드 전쟁에 적절한 수정 및 발전된 형태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원리를 구성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1] S. Kim, Y, Yoon, "A Study of Cognitive Warfare and Ethical Issues: Focusing on Just War The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451-459. https://doi.org/10.17703/JCCT.2023.9.3.451

[2] Hitoshi et al, "Challenges of Hybrid Warfare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Asia-Pacific," *Asia-Pacific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p. 220-230, 2019. https://doi.org/10.1017/9781108667203.014

[3] F.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4] J. K. Wither, "Making Sense of Hybrid Warfare," Connections: The Quarterly Journal, Vol. 15, no. 2, 2016, pp. 73 - 87.http://dx.doi.org/10.11610/Connections.15.2.06

[5]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1/11/30/hybrid-warfare-new-threats-complexity-and-trust-as-the-antidote/index.html

[6] E. Sloan. Hybrid War and Hegemonic Power. In: Hegemony and World Order. Routledge, pp. 101-117, 2020.

[7] L. Seth, "War,"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20 Edition)*, Edward N. Zalta (ed.), 2020.

[8] M.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4th (forth) edition. Basic Books, p.156, 2006.

[9]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iktok-war-how-russias-invasion-ukraine-played-social-medias-youngest-audience-2022-03-01/

[10] L. Seth, "Necessity in Self-Defense and War,"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40, No. 1 pp. 3 - 44, 2012. https://doi.org/10.1111/j.1088-4963.2012.01214.x

※ 이 논문은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연구지원(연구번호: 2023B100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